



인요한 박사, 구례군민 위한 수재민 구호용품 전달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자 지리산산교유적지보전협회 공동대표인 인요한(왼쪽에서 두번째) 박사가 최근 구례군청을 찾아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LG그룹의 협조를 받은 수재민 구호용품(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지리산산교유적지보전협회 제공>

순천 문성마을·고흥 죽섬마을 농촌 경진대회 본선 진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사진)는 순천 문성마을과 고흥 죽섬마을(애도)이 농업중앙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다고 7일 밝혔다. 두 마을은 전남지역 26개 지원 마을 가운데 지난 달 18일 열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문성마을은 깨끗한 마을 경관과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이 특징이다. 죽섬마을은 아름다운 경관을 강점으로 내세워 지역에선 큰 점수를 받았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이 경진대회는 농촌 고유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마을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4개 마을에 5억여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전남은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 대상(영암 생장마을)과 금상(순천 서동마을) 등 총 7개 마을 수상자를 배출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힘들어 하고 있는 농촌현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본선 상위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9월 이달의 5·18유공자에 고(故) 오세현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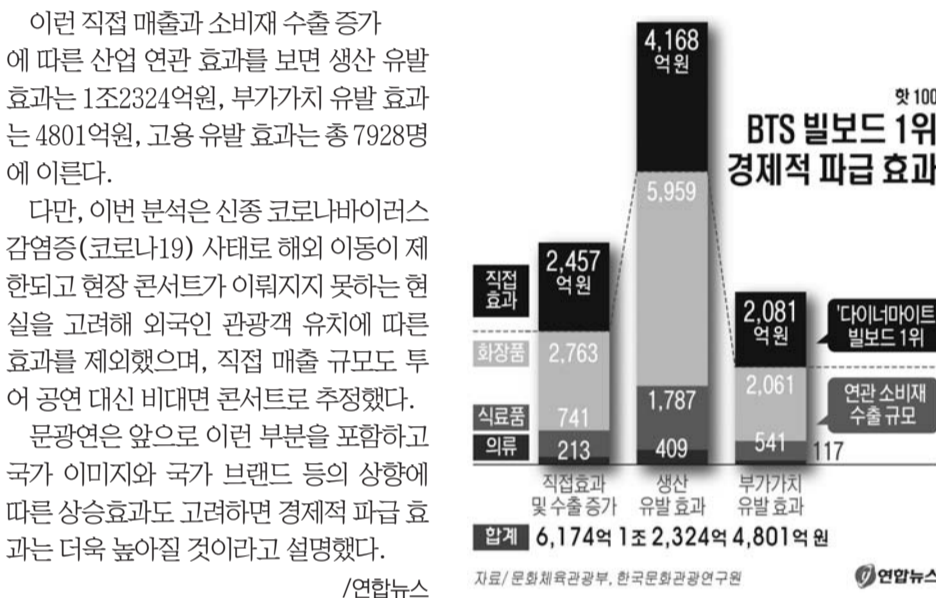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유형선)가 9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오세현씨를 선정했다. 오씨는 80년 3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한양행에 입사, 광주로 첫 발령을 받아 내려왔다. 5월 27일 회사에서 숙직을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의 무차별한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빌보드 1위’ BTS, 경제 효과 다이너마이트

문체부·문화연 분석...1조7000억원 효과 생산 유발 1조 2324억원·부가가치 4801억원 효과 국가 이미지·브랜드 상향에 따라 파급 효과 더욱 늘 것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원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추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와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량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

로 빅히트는 전 세계에서 2457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린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거둔 음반·음원, 공연, 지식재산(IP), 기타 수입 등 직접 효과를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다이너마이트 1위로 연관 소비재의 수출액 증가 규모는 3717억원으로 계산됐다. 화장품이 27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식품 741억원, 의류 21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분석은 구글 검색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증가하면 연관 소비재 수출도 일정 비율로 늘어날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 등이 활용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Rows list various programs like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 Lists programs such as '세게테마기행', 'EBS 정오뉴스', and 'EBS 비즈니스 리부' with their respective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8일(음 7월 21일 甲寅)

36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48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도. 60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72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84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96년생 어떤 유혹을 한다하더라도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30, 90
37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면이 해소 되리라. 49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61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73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85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97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4, 58
38년생 불기피한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50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74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리라. 86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될 수밖에 없다. 98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0, 94
39년생 악담 같은 없어도 덕담 같은 있으리라. 51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63년생 가라앉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75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87년생 더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99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행운의 숫자 : 00, 95
40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으리라. 52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64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6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88년생 취할 수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00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46, 68
41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3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65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77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89년생 과장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달콤하리라. 01년생 속독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8, 83